

대상에 따른 상황별 대처 요령

교미기간(11월~1월)과 포유기(4~6월), 부상당한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

집중 홍보기간: 동절기(11월~2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등산객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고,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 삼가하며,
산에서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
동물에게 먹이주는 행동 금지



농민

농지 주변에 남은 새참을
버리지 않고, 멧돼지를 쫓기
위한 행위를 절대 삼가하고,
시군구 또는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



운전자

야생동물 출현 안내판,
로드킬 안내
(내비게이션) 등 유의



보행자

시설물 뒤나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대피하고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 요령

최근 도심에서 멧돼지를 마주치는 경우가 늘어나고
멧돼지로 인해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멧돼지는 먼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만나면 '도망 갈 곳은 어디인가?' 그 생각부터 하는 동물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는 도망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멧돼지와 가까이 마주쳤을 때

서로 주시하고 있는 경우



1

침착하게...
눈을 보랬지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움직임을 똑바로 쳐다본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할 위험 증가!

2

천천히
피하고...



가까운 나무 등 은폐물 뒤로 몸을 피하고, 멧돼지의 다음 행동을 예의 주시한다.

3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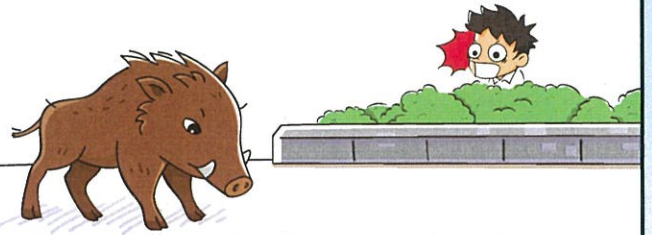
벽에 바짝
붙어야겠다!



멧돼지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멧돼지가 올라오지 못하는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벽에 바짝 붙어 멧돼지가 도망갈 수 있도록 비켜준다.

멧돼지와 일정거리에서 발견했을 때

멧돼지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



1

조용하게
뒷걸음질로...



조용히 뒷걸음질하여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2



멧돼지에게 돌을 던지는 등의 위협행위나, 우산을 펴는 등 주위를 끄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멧돼지가 공격을 받거나 놀란 상태에서는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3

은폐



절대 무리하게 멧돼지에게 접근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은폐물에 몸을 재빨리 숨긴 뒤 조용히 지켜본다.